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이 문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사본 PDF" 문서입니다.

제6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7. 01. 23(월) 13: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이창현, 부의장 윤정국, 김동훈, 한화택, 김영숙, 안승권, 김춘형, 박성호, 이태준, 전수빈, 노경조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발표자	기획처장 정승렬, 예산평가팀장 조준, 예산평가팀 양윤선		
안 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2.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 3.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승구 간사 : 재적의원 11명이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오늘 의 안건은 학칙 개정(안) 심의,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임을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개회를 선언하고 제6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함
- 이승구 간사 :
 - 예산(안) 자문에 대한 정관 내용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음을 설명함

- 대학발전계획 브리핑에 관해 추후 일정을 잡아 발표를 갖기로 안내함
- 대학평의원회 예산 세부 내역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함

▪ **이창현 의장** : 김동훈 의원에게 사전에 부탁한 예산(안) 자문 문제에 관해 의견을 요청함

▪ **김동훈 의원** : 예산(안) 자문 건에 관하여 모법인 사립학교법의 예결산 자문 조항에 의거,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정관에 적용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외부 자문을 요청한 결과, 자문, 심의, 의결 3단계 중 자문은 가장 구속력이 약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큰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심의에 있어서는, 심의기구의 의견이 의결기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예산(안) 안건에 관해 우리의 역할은 자문임을 확인하고 대학의 발전계획은 3월 이전에 브리핑의 시간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하며 지난 회의 결과에 따라 부의장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함.

대학평의원회 예산에 관하여 외부위원의 회의비는 20만원인데 반해 내부위원의 회의비가 2만원인 점은 평의원의 격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교내 여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이 문제에 관해 평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해준다면 회의비를 현실화하고 세미나 경비 등을 추가하는 등 세부적인 예산 내용을 의장과 부의장, 간사가 함께 논의하여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함.

▪ **의원 전원이 대학평의원회 예산안 조정 권한 위임에 관해 동의함**

▪ **김춘형 의원** : 의장과 운영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부의장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김춘형 의원의 발언 내용을 수용하기로 함

[안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 **이승구 간사** : 이번 학칙 개정(안)은 지난 1학기에 편제가 개편된 내용을 시행 시점에 맞추어 학칙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라고 설명함

- **안승권 의원** : 작년 회의에서, 개편되는 단과대학, 학과명에 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설명함
- **한화택 의원** : 단과대학 명칭의 경우 두 개의 단과대학이 조정되어 하나의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명칭을 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명칭이라 생각하고 명확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명칭 조정의 의견을 냈으나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이태준 의원** : 학칙 개정 사유를 보면 연계전공의 이수범위를 부전공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전공까지 꼭 이수해야하는 것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부전공까지 꼭 이수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의 차이점에 대해 묻고 조형대학과 예술대학의 전공이 합쳐질 경우 무슨 전공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연계전공은 계열이 같은 두 전공을 합쳐서 만든 전공이고 융합전공은 타계열 전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전공이라고 설명하고 조형대학과 예술대학의 전공이 합쳐질 경우에는 연계전공이 된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심화전공의 의미에 관해 묻고 이수 학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심화전공이란 해당 전공과목을 일정 과목 이상 추가로 이수할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서 다전공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소수의 과목만을 이수하고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심화전공의 이수 과목수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한화택 의원** : 단과대학 및 전공 명칭 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단과대학의 교수들이 논의하여 올린 것으로 교무위원회, 평의원회를 거쳐 변경되었으며 이미 신입생모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금 다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변함
- 안승권 의원 :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한 지침이 없는지 다른 대학의 경우는 어떤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육부의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각 단과대학 교수들이 다른 대학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작년 명칭 변경 당시에는 단과대학의 의견이 존중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명칭에 관한 문제가 교육의 질과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한 번 검토해달라고 의견 요청을 하였는데 변경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안건에 관해 교수들이 올린 것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장이 조정을 할 수 있어야하며 해당 대학의 관계자가 출석을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총장이라도 출석을 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함
- 전수빈 의원 : 심화전공의 학점을 9학점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교수들이 함께 심화전공의 수준을 높이고자 부전공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다른 대학도 심화전공의 학점이 이런 수준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학교마다 제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답변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함
- 한화택 의원 : 공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공학석박사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 교무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없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BIT전문대학원이 융합대학원이기도 하고 교무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논란은 없었다고 답변함
- **이승구 간사** :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조형대학의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에서 미술학석사와 공학석사를 선택하여 수여 받고자 할 경우 이러한 것도 가능한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요새 추세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원한다면 절차를 거쳐 상정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 **김영숙 의원** : 비즈니스IT분야가 10여 년 전에는 융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위 명칭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통과되었고 대학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대학평의원회가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학문을 구성하는 과목의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 판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과거에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이었으나 현재는 많이 알려졌으므로 융합 학문으로 볼 수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두 분야의 학문이 합쳐져 도출된 학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융합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른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교수들도 이러한 안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함
- **노경조 의원** : 이 문제는 대학원의원회에서 해당 대학원장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고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필요해서 개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학과 명칭 등을 논의할 때에도 대학원위원회를 거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관련된 공과대학, BIT전문대학원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함
- **이창현 의장** : 학칙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명칭이 단과대학의 요구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는 비통일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의견 개진하기로 함.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대의는 존중하지만 공학박사 나름대로의 권위와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학 석박사과정 생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의원들의 의견 제시를 요구함

▪ **한화택 의원** : 융합에 관해서는 늘 뜨거운 감자였으며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권장할 것인지, 안건의 내용보다는 정책 결정 방식이나 운영 방식,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함

▪ **노경조 의원** :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학부 학칙 개정(안)과는 다르게 급박히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창현 의장** : 노경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대학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회의에 공과대학 학장을 참석하게 하여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원들의 동의를 구함

▪ **김영숙 의원** : 의장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며, 기획처장의 발언 중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많은 부분들이 교수들은 반대하였으나 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함.
과거의 학장은 교수들의 투표로 선출했지만 현재의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 학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장과 해당 단과대학의 평교수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고 제안함

▪ **한화택 의원** :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장이 있고 각 운영위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대학원위원회에 각 단과대학 학장도 참석하는지 질문함

▪ **이승구 간사** :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원장들이 모여서 구성된 위원회라고 말하고 이번 안건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되었고 다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설명함

▪ **윤정국 부의장**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평의원회에 상정이 되지만 과거 대학이나 학과의 명칭 논의에 관해서도 대학평의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는지를 확인 후,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함

▪ **김영숙 의원** : 교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 대학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보며, 공시된 정보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학원의 원장과 평교수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들은 후 조율하였으면 한다고 발언함

▪ **안승권 의원** : 지난번 대학, 학과 명칭에 관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강하게 주장하여 조정이 되지 못했다는 보고받았다고 말하고 학장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중복 보직을 가지면서 생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새로운 의장이 틀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학칙 개정(안)에 관해, 창의공과대학이나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등 명칭 변경에 있어 학과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명칭에 통일성, 균형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강행되어 유감이지만 이미 신입생이 모집되어 학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추후 관련된 내용에 관해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의견과 함께 개정(안) 심의를 종결함.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해,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를 유보하고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공과대학 소속 교수회 평의원 각 2인을 정한 후, 다음 회의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 수여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출석 진술 또는 서면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결정함

[안건 2. 2017학년도 예산(안) 자문]

▪ **정승렬 기획처장** : 2017학년도 예산(안) 자료를 설명함

▪ **이태준 의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등록금 동결안으로 예산(안) 제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등록금의 책정은 심의 안건이고 3차 회의부터 양측이 안을 제시하여, 4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1.3% 인상안에서 양보한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학생 측은 9.2% 인하안에서 양보한 5.7% 인하안을 제시하였다고 말하고 두 가지 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회의록에 기재했으며 학교경영자가 최종적으로 동결안을 채택하여 그에 따라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상정된 것이라고 발언함

▪ **이태준 의원** : 예산(안)은 한 가지 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던 만큼 학생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생 측의 등록금 인하안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과 최종 동결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은 심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단일안을 내기 위해 제안을 한 것이고 결정을 못하면 퇴장하겠다는 학생 측의 주장에 따라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으며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라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5.7% 해당액이 얼마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약 60억 원 정도라고 답변함

▪ **김영숙 의원** : 예산(안)에 새로운 투자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자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어떤 지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올해 예산(안)부터 71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이 중 장기차입금이 200억 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고정비용을 제외한 사업성 지출은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인지라 실무팀장들과 학장, 각 부처장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향후 10년가량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20% 정도는 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설명함.

2017년도에는 휴학생이 복학을 할 때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정원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대비 약 60억 원의 등록금수입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다행히 단기수강료가 약 27억 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물가도 인상되고 관리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60억 원의 예산은 확실한 감소가 예측되므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함.

지금 있는 적립금을 인출만 하게 된다면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추구해야한다고 발언함.

▪ **한화택 의원** : 현재 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작년 대비 수입 예산의 감소와 장기 투자에 따른 대출 이자 등의 부담 등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장기적인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적립금 규모는 905억 원 정도이며 순 인출액이 약 600억 원 정도 되고 적립금 잔액은 약 27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적립금이 900억 원 가량이면 위기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적립액수인데 학교 측의 생각은 이 적립금을 고려보건대 건물 인수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학생들에게 분담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적립금 중에는 건물 감가상각에 대비한 적립금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적립금을 인출하여 등록금을 인하하고 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건물 감가상각비 상각이 끝난 건물도 있는지 질문함
- **양윤선** : 감가상각비 상각이 끝난 건물도 있고 그러한 건물은 더 이상 상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은 차입금으로 총당하고 편입생 숫자가 늘어 수입이 늘게 되면 이자를 총당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안)에 건물 매입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당황스럽다고 말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궁금해 하는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 교원 보수체계 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발전기금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고려보건대 건물을 매입하면 교지확보율이 늘어나 편입생 산정등급이 달라지므로 한 등급 당 약 15억 원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당장 반영되는 액수가 아니므로 적절한 시점이 되었을 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함. 등록금의 산정은 고려보건대 매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물가 상승률이 1%이고 최저임금이 7.3% 올라가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긴축재정을 시행하여 동결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예산은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를 하는데 고려보건대 건물의 인수가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높다하여 잡아 놓은 계획이며 인수가 무산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 건은 투자의 차원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이익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매입 금액을 전액 대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잡혀있는 62억 원이 개보수비용 일부라고 하는데 규모가 2000평에 해당하는 만큼 개보수 비용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건물을 인수하면 추가적인 이사 비용 등도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이사를 가느냐에 따라 부대비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강의실 뿐 아니라 연구실, 실험실 모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라면 평창동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 또한 4~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3~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함

▪ **김영숙 의원** : 만약 이공계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실험실 등은 이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긴축 재정으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줄어든다면 대외 평가에서 지표가 떨어지면서 우수 학생 영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이사에 관해서는 시설팀이 여러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대외평가에 대비한 국고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학교의 등록금 환원율은 2011년 119%에서 2015년 161%로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고 2년 인하, 3년째 동결을 하고 있는 2016년도 학부 등록금 수준은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등과 비교했을 때 30~40만원이 낮은 18등 수준으로서 경쟁대학에 비해 4~50억 원이 적은 수입으로 예산이 시작된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학부인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단기수강료 수입으로 보충하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학교 상황은 나이질 것 보다는 어려워질 조짐이 더 크고 국고지원을 위해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등 국민대학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경제 상태가 저성장애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면 부동산 기획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나 고려보건대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며 다시없을 기회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발언함.

변화가 많은 편입생 정책을 예측하여 적립금의 60~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출은 명확하고 불확실성은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교내 구성원들 모두에게 좀 더 전략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나 해설서 등의 기획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의장님의 조언대로 준비해보겠다고 말하고 예산의 심의 문제는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건물 매입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건물의 매입이 예산과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7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요구나 교수들의 성과급제를 설명할 때 풍선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신문대금을 줄이고 사무용기구를 줄이는 등 지금도 부족한 소모품을 줄여가며 건물을 짓는다고 예산을 책정하고, 민속관 옆 건물 신축 예산은 4년 째 사용하지 않는 등 매번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정리되어야 하며 구성원이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자료가 충실하고 자세하긴 하지만 긴축 재정이라 하면서도 전체 예산은 50억 원이 증액되어 있고 가결산보다 올해의 예산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함

▪ **정승렬 기획처장** : 고정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사업 지출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우리 학교 신문대금 같은 경우는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데 특근식대 등을 줄이는 것 보다는 이러한 비용을 50%로 줄이는 것이 더 상징성이 있다고 보며 민속관 옆 건물 신축은 작년에는 고대건물 매입 건으로 인해 보류가 되었지만 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은 이해한다고 발언함

▪ **이태준 의원** : 구성원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법인은 전입금 4억 원을 늘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할 게 아니라 법정부담전입금 72억 원을 모두 내야한다고 생각하며 학교의 시설 투자에는 법인이 관여해야 한다고 발언함.
예비비를 꼭 1%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의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책정된 액수는 0.7% 해당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함

▪ **조준 부장** : 예비비는 사업비, 고정비의 1%를 말하므로 현재의 액수는 1%가 맞다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고려보건대 매입이나 프라임사업 등도 그러했고 지금의 상황도 추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어렵지만 그만큼 더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처장** : 예산안이라는 것이 수입도 불확실하고 지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에 잡혀 있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도 꼭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자료들과 각 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한 전문성을 띤 결과로 보아야한다고 설명함

- **이창현 의장** : 학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전략적 선택이 타당한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비밀 준수의 각서를 받고 회계학과 교수나 전 기획처장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안승권 의원** : 예산이 작업되려면 중장기 전략이 연동되어야 하고 비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함

- **박성호 의원**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의 건은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이고 거래를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학교에서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하고 교지확보율이 무척 낮은 상황에서 인접한 교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에는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김영숙 의원** : 건물 매입은 투자이고 돈을 안 쓰는 것 보다는 제대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매입을 하면 올라가게 될 대외 평가도나 지표 등의 좋은 점, 우려되는 점, 매입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 등에 관해 양방향 시뮬레이션을 요청함

- **한화택 의원** : 학교의 발전계획이 보통은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지만 이미 공개된 땅이고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사업계획, 발전계획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발언함

- **김춘형 의원** :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 문제는 작년 상반기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1년 정도 논의된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본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안이니만큼 외부에 자문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으며 도리어 결산 때 최초 예산과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2017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추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교지·교사 매입의 타당성에 따른 장기 계획 보고를 요청하고 이를 들은 후 자금 예산서를 추가 검토하여 자문을 확정하기로 함

[안건 3. 기타 토의사항]

- 김춘형 의원 : 평의원회 운영에 관해 단체 대화방을 열어 운영위원이 학교 측과의 후속조치를 해주고 의원들 간에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창현 의장 : 전수빈 의원에게 단체 대화방 생성을 요청하고 평의원들에게 대학 평의원회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수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승구 간사 : 지금까지는 세부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회의록은 중요사항만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었다고 설명함
- 평의원 모두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대로 중요사항을 간략히 적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이창현 의장 : 다음 회의는 2월 6일(월) 10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함

붙 임 : 제6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자료 1 부.